

2018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제2외국어/한문]

한문 I 정답

1	④	2	①	3	④	4	②	5	⑤
6	②	7	⑤	8	③	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④	14	①	15	①
16	③	17	④	18	⑤	19	⑤	20	①
21	③	22	④	23	①	24	②	25	③
26	⑤	27	②	28	②	29	③	30	③

해 설

1.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맞이하다’를 뜻하는 ‘迎’을 찾는다.

2.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한자는 ‘목숨(명)’이다.

3.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 ‘恥’ 부끄럽다(치), ㉡ ‘忽’ 문득(홀)

4.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ㄱ. 편안하다, ㄴ. 높다 - 낮다, ㄷ. 더하다, ㄹ. 많다 - 적다

5.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① 초안, ② 낙점, ③ 채근, ④ 파경, ⑤ 산화

6.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한다.

7. [출제의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 발음은 모두 다르며, 표기도 다른 경우가 있다. 한자로 표기하는 어휘 중 의미는 같지만 한국, 중국, 일본에서 다르게 표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항이다.

8.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거취(去就). ㉠ 고취, ㉡ 내방: 만나기 위해 찾아옴.

9.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가로 열쇠는 ‘면중복배(面從腹背)’이고, 세로 열쇠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이다.

10.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은 조화를 끝까지 궁구할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11.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④ 혼정신성은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아침에는 (안부를) 살핌.’을 뜻하는 성어이다.

12.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여덟 개의 글자 중 네 자를 골라서 성어를 완성하고, 그 속뜻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제시된 글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13.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① 불행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으니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겠는가? ② 자신을 규율함은 모름지기 분명해야만 하나 남을 대함은 감싸 안아야 한다. ③ 소리는 가늘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없고, 행동은 숨겨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④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이 병나기 전에 스스로 막느니만 못하다. ⑤ 인심이 굳게 단결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인심이 흩어지면 나라가 위태롭다.

14.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① 이미 지난 일은 모름지기 생각하지 말고, 바야흐로 올 일 또한 생각하지 마라. ②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③ 나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의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다. ④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발설하지 말고, 남의 지나간 잘못을 생각하지 마라. ⑤ 음식을 조절하지 못함은 병에 이르는 원인이고,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함은 몸을 망치는 근본이다.

15.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작은 데서 큰 것을 도모하는 사람은 흥하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잇는 사람은 망한다.

16.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① 글 스승은 얻기 쉬우나, 사람 스승은 얻기 어렵다. ② 욕심을 같이하는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근심을 같이하는 사람은 서로 친하다. ③ 옛날의 법을 사용하여 현재를 다스리는 사람은 일의 변화에 통달하지 못한다. ④ 옛날의 배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였는데 지금의 배우는 사람은 남을 위한다. ⑤ 자기를 살피면 남을 알 수 있고 지금을 살피면 옛날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① 귀에 대고 하는 말은 듣지 마라. ② 사람을 의심하면 쓰지 말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③ 한 자 길이도 짧을 때가 있고, 한 치 길이도 길 때가 있다. ④ 공적인 일은 남보다 앞서 하고, 사적인 일은 남보다 뒤에 한다. ⑤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겨나니 이익이 앞에 놓이면 검손을 생각해야 한다.

18.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삼 일 갈 길을 하루에 가고 열흘 논다.

①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② 도를 들은 것이 백이면 스스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 ③ 말은 행동과 다르게 하지 말고, 행동은 말과 다르게 하지 마라. ④ 편안하여 방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위태로우면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 낫다. ⑤ 모든 일에 (자신의) 힘을 헤아려 행동하면 오래가면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19 ~ 20]

공자가 안연에게 일러 말했다. “씨 주면 (조정에 나가서 도를) 행하고, 버리면 (조정에서 물러나) 은거함을 오직 나와 너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자료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치려고 하고, (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 하면서 죽어도 후회가 없는 자를 나는 함께하지 않겠으니,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며 꾀하기를 좋아하여 일을 이루어 내는 자일 것이다.”

19.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 후회하다

20.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① 신중, ② 공정, ③ 선량, ④ 우직, ⑤ 대범

[21 ~ 22]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데는 군대가 가장 급하니, 근심이 없는 세상이라도 (군대는) 더욱 느슨히 해서는 안 된다. 옛날의 성왕(聖王)들은 잘 다스려진 때에도 어지러운 때를 잊지 않고 편안할 때도 위태로운 때를 잊지 않아, 한가한 날에 잘 다스려서 위급할 때에 왕성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유비무환이라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22.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에 들어갈 내용은 ‘有備而無患者’이다.

[23 ~ 24]

무릇 어떤 일이 어렵다 하는 것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사람의 재능과 분수는 본래 한계가 있으나 달가운 마음으로 지향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나태한 마음으로 지향하면 일이 허물어지지 않음이 없다(허물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사람들 중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달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쉽다고 느끼지만 사람들 중에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어렵다고 느낀다.

23.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안다.

① 수식 관계, ② 병렬 관계, ③ 주술 관계, ④ 병렬 관계, ⑤ 술보 관계

24.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5 ~ 27]

관중이 말하길, “내가 처음 곤궁했을 때 일찍이 포숙과 함께 장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내가 많이 가졌으나 포숙이 나를 탐욕스럽게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내가 일찍이 포숙을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였는데 또다시 곤경에 처하였으나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때에는 이로울 때와 불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찍이 세 번 베풀하여 세 번 임금에게 쫓겨났지만, 포숙이 나를 못났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내가 일찍이 세 번 싸우다가 세 번 도망갔는데 포숙이 나를 비겁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나에게 늙으신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중략> 나를 낳아 준 사람은 부모요,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25.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의 풀이는 ‘더욱’이다.

26.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7.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見 ~ 於...’는 ‘...에게 ~을 당하다’로 풀이한다.

[28 ~ 30]

(가) 눈을 뚫고 들 가운데를 갈 때./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내가 다닌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를 만들 것이니.
(나) 고향을 떠난 지 세월이 오래되니./ 근래에 인간관계는 반이나 없어졌네./ 오직 문 앞의 경호 물만./ 봄바람에도 옛날의 물결 그대로네.

28. [출제의도] 한시를 읽고 풀이한다.

29.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율시는 4연 8구로 이루어진 시이다.

30.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가) 시는 앞서 간 사람의 발자취가 뒷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처럼 선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나) 시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웃들이 반이나 사라진 상황을 자연의 모습과 대조하여 세월의 무상함을 나타내고 있다.